

인사의 말씀



한국육아지원학회
회장 장영희

안녕하십니까?

e-뉴스레터를 통하여 회원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이지만 건강하고 보람 있는 나날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는 미래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위의 글은 저출산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출산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한 공영방송의 광고내용입니다. 미래를 살 아이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 가는 곧 아이들 자신의 미래와 나라의 미래, 그리고 이 세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출산과 육아로 인한 짐이 너무 무거워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마다하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 영유아들이 밝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지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 사회의 육아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연결하고 육아지원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학문적인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한국육아지원학회는 창립되었습니다.

한국육아지원학회는 이러한 창립취지에 맞게 다양한 학술활동 및 연구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정책방향과 실천과제에 대하여 연구하고 발표하여 왔습니다. 육아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연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학회 간 교류를 활성화했으며, 이러한 학문적 교류는 앞으로 더욱 활성화할 것입니다. 또한 생애초기는 개인의 잠재능력을 개발하는 결정적 시기라는 관점에서 교육적 지원에 대한 세계 각국의 주요정책 및 연구동향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학회를 창립하고 짧은 기간이지만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초대회장 이신 이기숙 교수님을 비롯하여 제1기 집행부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학회는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발전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배인자(우송공업대학 교수)

‘내일, 인천공항이 아니구 김포공항이라는 구나...’
‘아이구 ! 나 혼자 인천으로 갈 뻔했네....’

□ 2월 2일, 드디어 일본으로의 심포지움 참가 연수 일정이 시작되었다.

일과 일로 지나가는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여정으로의 탈출을 즐거워하며, 설레임반 기대반 그리고 약간의 부담감(심포지움 참가이므로)을 안고 김포공항에 도착하였다. 공항로비 멀리서도 서로 쉽게 찾으려 모여진 선생님들! 그 만남의 반가움은 오랜 시간 유아교육의 많은 메시지들을 공유해 온 정서 때문이었으리... 그동안의 안부를 나누며 지낸 2시간은 어느새 우리 일행을 일본 하네다 공항에 데려다 놓았다.

□ 첫날, 첫 번째 연수 일정은 *오차노미즈* 여자대학교의 부속 유치원 참관이였다.

우리 일행이 도착했던 시간, 유치원 입구에는 귀가하는 자녀를 데리러 온 어머니들로 가득하였다. 유치원의 오랜 역사와 전통에 긍지와 자랑을 아끼시지 않는 원장님의 안내로 복도 한쪽에 위치한 교실들을 둘러보았다. 해맑고 자기표현에 주저함 없는 아이들의 모습은 여전히 이곳에도 존재하고 있었으며, 어떠한 교육환경이든 유아들 스스로의 삶이 만들어지는 행복한 공간이 유치원임을 확인하였다. 유아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교육신념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는 설명 뒤에 유치원 건물 앞에 펼쳐진 푸른 나무숲의 실외공간을 둘러보며 오차노미즈 대학 부속유치원의 자긍감을 보았다. 방문객을 환대해 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나누고 그 다음 일정을 이어갔다.



□ 첫날, 두 번째 연수 일정은 *시부야* 구립 *미타케노오카* 보육원 참관이였다.

9층높이의 커다란 복지시설 건물 1층에는 영유아를 지원하는 보육원이 위치해 있었다. 새 건물이 주는 쾌적함이 배인 공간에서 무엇보다 먼저 눈에 들어 온 곳은 아주 작은 전이공간으로써 어린 영아가 겪는 부모와의 분리불안을 줄여주기 위한 배려와 안락함이 보여졌다. 어린 아이 만큼이나 맑은 함박웃음에 상냥함 가득한 원장님과 교사들의 질서는 어린이의 요구와 생각을 우선하려는 의지와 열정을 읽어내기에 충분했다.



□ 공식적인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도착한 우리는 호텔의 아주 작고 작은 1인 1실을 신기해하며, 있을 것 다 있는 그 매력적인 공간에서 구애됨 없이(?) 숙면하는 일박을 보냈다.

□ 2월 3일 둘째 날, 이번 연수의 메인(main) 이었던 국제심포지움이 있었다.

주최하였던 CRN(Child Research Net) 설립 10주년 기념의 국제심포지움이었으며, 공동주최한 베네세차세대육성연구소 측의 배려로 세미나장의 가운데 앞좌석에 초대받아 더욱 경청하는 자세로 모델링을 하였으니... 온 종일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였던가.....!!

이번 심포지움은 「子ども學」 小児化 社會 를 주제로 하여 오전에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었던 오에 겐자부로 작가의 특별강연과 중국의 ‘뇌과학과 교육’에 대한 기초강연이 있었다. 특별히 오에 겐자부로 작가는 창작품 ‘The Children of 200 years’에서 미래 인간의 모델을 현재의 어린이로부터 그려내고자 했음을 회상하며, 사회적 환경의 어려움을 논하기보다는 낙천적 관점에서 오늘 현재와 이야기하기를 즐기는 것이 미래사회의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창구임을 전하며 청중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안겨 주었다.



□ 오후에 진행된 패널 디스커션에서는 ‘어린이의 성장환경으로서의 소자녀화 사회를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한국 중국 일본 연구 발표가 있었다.

한국 의학계 이근 교수님과 박정환 교수님의 발표는 저출산 문제요인을 다각적인 차원에서 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외국에서 만나지는 한국은 태극기 감동 그 자체인지 동시통역기와 무관하게 잘 들려오는 메시지에 무조건 박수를 드리고 싶었다. 무엇보다 이근 교수님은 유아가 부모나 또래와 지낼 시간이 줄어드는 채 조기부터 교육경쟁에 내몰리는 현실에서, 이제 어른들의 책임은 어린이를 보다 면밀하게 지켜보며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임을 강조하였다. 이 메시지는 비단 유아교육계에서만 부르짖는 이론이 아님에 모든 학문 분야 그리고 정책 아니 이 세상 어른들 모두 동조해야 할 터인데...

□ 이어 발표된 중국의 연구는 한 자녀 두기를 고집하였던 지난 세기를 통해, 한 자녀가 지닌 사회능력과 정서적 특성을 보고하였다. 일본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겪는 자녀양육 스트레스 특히 부모됨의 준비 없이 부모가 된 경우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학대문제까지 다루어 보고하면서 ‘부모로서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다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노력함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미에 중점을 둔 부모 지원 프로그램의 실천을 언급하였다.

□ 심포지움이 폐회되고 이어진 리셉션 장소에 모인 다국적 다학문적 분야의 사람들!! 이 모두 한 가지의 관심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이었을 것이다. 성황리에 마쳐진 심포지움 행사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또 한번의 감동은 우리 연수참가 일행을 이끌어 주신 이기숙 회장님께서 한국대표로 인사말씀 주시던 자리! 서서 담소를 나누던 많은 외국 참석자들도 시선을 한 곳으로 모았던 교감의 자리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겨져있다.

그리고 육아를 지원하고자 함은 교육, 의료, 복지, 행정... 관련한 인접 학문이 연계될 수 있어야함을 이번 연수 참여를 통해서도 새삼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어진 생각은 한국육아지원학회의 창립취지를 되새겨 보게 한 시간이었음으로 기억한다.

□ 2월 4일 셋째 날, 우리 일행은 숙소에서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 ‘코도모노 시로’ (子どもの城 : 어린이의 성)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른 시간인데도 엄마와 손잡은 아이들이 하나 둘 모여 개관시간을 기다리는 모습!!

아이들이 행복해 할 수 있는 어른들의 지원은 그리 복잡한 일도 아닐텐데, 영유아를 위해 존재한다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바람직한 육아지원에 대한 해석들을 서로 달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정한 육아지원을 위해 전문가들은 건설적인 연구의 장을 통해 지치지 않고 생각을 나누고 모으는 일을 해 왔고 또 해낼 것이다.



지난 일본 연수를 돌이켜 보며, 정말 주선하고 주최한다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임에도 회원들에게 삶의 기회를 만들어 주신 한국육아지원학회장 이기숙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진심의 후원을 해 주신 베네세 코리아 회사에도 감사를 드리고 싶다. 그리고 짧았지만 많이 가득했던 이번 연수처럼 또 다시 보고 듣고 느낄 연수기회가 마련되어지기를 희망해 본다.

1. 학회활동보고

1) 학술대회 - 2007년 한국육아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

- 일시 : 2007년 4월 14일(토) 09: 00 ~ 13: 00
-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관 B동 153호
- 학술대회 주제 : 부모기 탐색 - 건강한 육아를 위한 예비부모 지원
- 학술대회 참석인원 : 190명
- 정기총회 참석인원 및 진행사항 :
 - 87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개최
 - 전 회의록 낭독이 있었으며 회원들의 동의 제청으로 가결됨.
 - 2006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회계 감사보고, 2007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보고가 있었으며 회원들의 동의 제청으로 가결됨.
 - 회장선거 : 회장선출 회칙 낭송 후 선출방법을 의결함(전형위원 구성 및 추천). 전형위원간의 협의 후 장영희 교수(성신여대 유아교육과)를 회장으로 선출함. 신임회장 인사말 및 감사 선출 (류지후 감사 연임, 김혜경 회원).

2) 육아지원연구

- 제 1권 2호 발간 : 2006년 10월자로 발간 (총 9편의 논문이 실림)

3) 연구모임

① 제1회 연구모임

- 일시 : 2007년 3월 10일(토) 오전 10: 30 ~ 12:00
- 장소 : 성신여자대학교 수정관 313호 다매체회의실
- 주제 : 또래중재를 위한 보완대체 의사소통 대화상대자 훈련이 중도 지체장애 유아의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 참석인원: 20명

② 제2회 연구모임

- 일시 : 2007년 6월 15일 (금) 오전 17: 00 ~ 19:00
- 장소 : 성신여자대학교 수정관 313호 다매체회의실
- 주제 : 유아를 위한 교육적 놀이 활동 운영
- 참석인원: 26명

2. 회원동정

○ 강숙현 교수(순천제일대학)

6월에 정민사에서 로라버크(Laura E. Berk)의 <아동발달>5판을 공역출간합니다. 원서제목은 Infants and Children(5th ed.)

○ 심성경 교수(원광대학교) : 역서 출간

- 제목 : 영유아를 위한 교수매체의 이론과 실제
- 출판사 : 학지사
- 역자 : 심성경, 김경의, 변길희, 김나림, 최대훈, 박주희